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金鶴香油

社說 朝鮮金融界의 趨移

一

戰時下 金融界의 趨勢가 平常時와 다른것은 常識으로도 잘 判斷할바이다. 特別히 戰爭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經濟界 모든 分野에 亘하야 人爲的操作을 하는것이 必然의 現象이요 따라서 統制經濟가 一層 强化하는것은 自明의 事實이다. 特히 金融界에 잇서서는 그 重要性이 다른 經濟界의 分野보담 絶對的이다 그러므로 今次 事變에 잇서서도 政府에서는 第一着으로 資金調整法을 施行하엿슬뿐아니라 其他 모든 最善의 手段과 方法을 講究實行하여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는데에 萬全을 期하고잇다. 結果로 朝鮮金融界에도 種種의 特殊趨勢가 發生되고 또그것의 原因으로 經濟界에도 種種의 現狀이 나타나는바이다.

二

今年度에 드러서 上半期의 金融界趨勢를보면 資金調整에依하야 一般金融은 緊縮하게되고 이것이 資金의 餘裕를生하게되어 金融界의 正常化를 現出하여것다. 지금京城組合銀行의 預金과 貸出의 "바란스"를보면事變後半歲를지난今年二月末現在로 預金이 一億八千六百七十五萬餘圓이요 貸出이 一億五千六百七十四萬餘圓이엿는데 이것을 前年의 同期에比較하여보면 預金은四千十六萬餘圓의 增加이나 그增勢는 預金이 加速度的임에 反하야 貸出은 劣勢를示하고 잇섯다 또 東一 商銀 漢銀等 所謂地元乙種銀行의上半期末預貸"바란스"를 보아도 預金이貸出을 超過하여서 그額은 實로 一千七百五萬三千餘圓이엿는데 이것은 朝鮮으로서는 未曾有의 初記錄을내인것이라고 하는바이다 그래서 預金增加가 貸出增加를 凌駕하고잇는 趨勢이다。

三

그뿐만아니라 六月末現在全朝鮮金融界의 決算을 보면 預金總額이 八億七千二百八十四萬餘圓이요 貸出總額이 十三億一千五百一萬餘圓이엿는데 이것을前年同期에 比較하여보면 預金은 一億六千百三十餘萬圓 貸出은 八千四百四十餘萬圓의 增加로 預金의 八億七千萬圓臺는 朝鮮에 잇서서 最新最高 記錄이라고하는바이며 또 預金의加速的增加에 反하야 貸出은 時局產業以外의 一般金融이 警戒해진때문에 緩漫한 牛步的增加를 示하엿다 이것에 對한 原因을 簡略하게考究하여본다면 日資金調整法의制約 日銀資金의回收 日株式投資의委縮等等은貸出緩漫의直接原因이되고 日貯蓄의 積極的獎勵 日政府支拂의增加 日新規事業의 停滯 日消費節約의强調等等은 預金增加의直接原因이 되는것이다 이와가튼 預金增加의 趨勢는 戰時經濟가 繼續되는限 今後에도 얼마쯤더 支續性을 가질것은 推測키不難한바이다.

四

金融界의 動向이 上述한바와가타 預金增貸出減을 示하는것은 그原因如何를 勿論하고 一種의 조金現象이다 特히長期戰體制下에 잇서서 國民의 經濟가 實力이잇다는 反響으로 볼[illegible]다면 實로 [illegible] 일이다 그러나 反面에 잇서서 貸出自制 必然한 今日에잇서서 一種의 [illegible] 生產界의 [illegible] 아니된다고하기도 어렵다 [illegible] 生產의 [illegible] 比率下에 [illegible] 金融의 [illegible] 하는限 [illegible] 資金調整法이 許[illegible] 一[illegible] 中小商工業者의 [illegible] 어서서는 [illegible] 中小商工業者에 [illegible] 今[illegible] 지금이 그 [illegible] 業者의 一[illegible] 考慮를 要한다.

共產黨의主張으로 武漢民衆武裝! 蔣介石政權遂發令

【漢口電】我漢口攻略部隊의 進擊으로 『民衆武裝、保衛武漢』의 要求에 强要되어 蔣政權은 去一日 마침내 武漢衛戍司令部及 軍事委員會政治部의 共同命令으로써 勞働組合其他 一般民衆團體로하여금 自衛隊를 組織케하야 民衆武裝의 第一步를 내디디게되엿다 右自衛團은 于先防諜、通信、運輸、土木等의 訓練에 當케하는바 當分間은 武器는 給與치 안흐나 本格的 武漢攻防戰이 展開될때가지에는 武裝訓練을 實施한後 第一線으로 配置하게될터이다 여에關하야 目下漢口滯在中인 共產黨심퍼 스메들레女史는 外國宣教師들에 하고엇는 武漢難民區設置運動을 가르쳐 그릇된 人道主義라 論難한後 「難民區에 市民을 남겨두는것은 日本軍 入城後 原狀回復을 돕는데 지나지못하므로 市民中戰鬪에 견딜수엄는者는 一人도 남기지말고 避難케한後 武漢三鎭을 完全한 保壘로 化한後 殘留市民은 모두 武器를 들고 武漢防衛第一線에 參加하여야한다」라고 煽動하고잇는바 今番武漢防衛團組織은 民衆武裝에 잇서서의 共產黨의 初步的成功이라하야 重大視되고잇다

武漢民衆武裝問題 國共間軋轢具體化

【上海四日發同盟】武漢民衆武裝動員問題는 共產黨側의 主張에 依하야 蔣介石도이에 贊意를 表한듯하드니 民衆武裝의結果는반다시 共產黨에게 利用될것이明白하므로 武漢衛戍司令部에서는 이影響을 적게하기爲하야 戰鬪員非戰鬪員의區別을明瞭히하는聲明을 明五日發表하기로하엿다 그리고 同司令部의計畫은 于先六萬六千人民衆을動員하야其中六千人을 防衛任務者로 命하엿는데 此等을武裝할것인가는 아직未決定狀態로 共產黨의 二十萬民衆武裝主張을封하엿다 武漢最後의日이 切迫함에따라 國共間의軋轢은 漸次具體的形式을 取하게되엿다

前駐日許大使 難民救濟에專力

【上海四日發同盟】지난四月二十四日東京麻布大使館을 閉鎖하고 敗戰의 故國으로 撤歸한駐日支那大使許世英은 最近同志를 糾合하야 香港서難民救濟委員會를 設立하고 慈善事業에 活躍하고잇는바 日支紛爭渦中으로부터逃避하야 同氏가 東京을出發할때 『다시도라오려다그때는 一個의 私人으로올것이다』라고말한것이 참말로 時人다운人間許世英으로 도라간것이다 그러고同委員會는 中國難民救濟를 目的으로 設置되여 獨自의立場에서 政府의制肘를 밧지안코 專혀 그가 理想으로하는 名利를 離脫한 淡白한生活을 하고저하는 姿態가 想起된다

天皇陛下 海軍航空廠行幸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去月三十日부터 葉山御用邸에 行幸하옵시사 玉體御靜養의 날을 보내옵시어 益益御健勝하옵시다고 拜承되오바 來十一日에는 惶恐하옵시게도 葉山御用邸御出門 橫須賀海軍航空廠及 東京灣海軍航空隊에 行幸하옵실 盼附가 계옵서다고 承聞된다 陛下께옵서는 今次事變에잇서 海의荒鷲가 世界空中戰史上 未曾有의活躍을 기괴 御滿足하옵시게는끼옵시어 今番行幸도 海軍航空關係者의 勞苦를 慰하옵시려는 惶恐하온 軫念에依하옵신것으로 拜聞되는바 同時에 新銳海軍機도 天覽하옵실 御意向이계시옵시어 御內意를 拜承한關係者는 기괴感激하고잇다

寫眞은 我高射砲隊의活躍(山西戰線)

武器輸送新經路 海蔘威→香港→漢口

【石家莊發電】石家莊에達한情報에依하면 蘇聯製武器는 外蒙古及新疆으로부터 甘肅省을經由하야 西安에이르는 自動車道路에 依하야 運搬되고잇는것도 엇스나 이것은 輸送하는 自動車가 不足한때문에 材料를 아올러 輸送에要하는 實際運搬되는것은 極히少量이라고하며大部分은 海蔘威方面으로부터 香港을經由 漢口로輸送되는데 이것을 漢口經由 支那軍前線으로 配備하고잇다 그러나 支那軍의 全面的敗退를앞두고 依然惡化한 蘇聯의援助에도不拘하고 支那軍全般에亘하야 戰意의喪失、軍紀의紊亂은 掩蔽키어려운바로 頹勢의挽回는 困難한것으로觀測되는데 比較的 給與를밧는 中央軍整理師團을除한外에 地方雜軍의 大部分은 給與가不充分하기때문에 地方民의食料를 掠奪하야 겨우糊口하고잇는形便이바 中央軍整理師團中에서도 脫走兵이 續出하는狀態이다

重慶、漢口空襲 致命的打擊을與한後 砲艦砲艇도爆破

【上海四日發同盟】艦隊報道部四日午正發表 八月三日 重慶漢口를 空襲하야 敵再建戰鬪機隊에 致命的打擊을 與한外에 航空隊의一部는 繼續하야 九江上流沿岸의 武穴로부터 團風에이르는사이에서 砲艦一隻을粉碎、砲艇一隻을 擊破하고 軍需品을滿載한 大型장크十數隻을 爆沈시켯다 黃石港附近 港岸倉庫群은 猛烈한火焰에 灰燼되엿스며 또 田家鎭附近陣地에 大損害를與하엿다 그리고 또 一方 江上部隊의 殘敵殘壘掃蕩에 協力하야 彭澤附近에서 敵數萬의 大部隊據點을 爆破하야 莫大한損害를 與하엿다

陸軍首腦會合 長鼓峯事件對策協議

【東京電話同盟】陸軍省은 四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首相官邸에 板垣陸相、東條次官、中村軍務局長、田中兵務局長、影佐軍務課長等이出席하야 長鼓峯事件에關한 對策其他 重要問題에 對하야 協議한後 同七時에 散會하엿다 [illegible]

時局對策委員會 關係官制를審議

【東京電話同盟】[illegible] 事變에依한 新事態에 對應할 朝鮮最高方針의 總督府時局對策은이미 關係各局課에서 各各主管事項을中心으로 原案作成을 促하야 [illegible] 準備委員 [illegible] 時局對策에 [illegible] 法制局[illegible] 三日 [illegible] 正式決定을 거[illegible] 各局課[illegible] 時局對策委員會(名稱 [illegible])에 [illegible] 各方面의 [illegible] 委員會乃至[illegible] 組織하라고 어미各各人 [illegible] 行하고잇는바 官制公布가되면 近近 第一回委員會를 [illegible] 開催된다

被害地復舊對策

【東京電話同盟】內務省土木局에서는 [illegible] 被害地의河川及砂防의 根치 [illegible]

第一線方面 依然平穩 큰變化업다

【東京電話同盟】陸軍省四日午後六時四十分發表
一、今四日午前十時頃 古城에 對하야 砲擊이 잇섯스나 我方에 損害는업다
一、午後六時까지에 드러온 情報에 依하면 第一線方面은 依然平穩하며 큰 變化는업다

首相內相會談

【東京電話同盟】首相內相會談은 四日午前八時半부터 荻窪首相別邸에서열려 朝食을가치하면서 當面諸問題에 對하야 意見交換을 遂하고 內相은十時辭去하엿다

綿製品고무等 最高標準價格決定 中央物價委員會答申

【東京電話同盟】中央物價委員會는 四日午後三時부터 東京商工會議所에서 第八回總會를 開催한바 이보다앞서 同日 第一乃至第二特別委員會에서 決定한 答申案原案을、附議
一、綿製品販賣及 加工制限이解除된 內地用綿布의 最高價格을追加 五十三品目 最高標準販賣價格
一、늘근고무及 再成고무 親揩用고무、늘근最高標準價格
一、家賃、地代의引下方針
一、海上運賃引下方針
等에關한 答申案을 決定한後商工大臣에게 提出하엿다 그리고 今回決定된 綿製品最高價格은販賣制限令 施行當時에 比하야 二割가량 引下되엿스며 또 늘근고무最高價格은 六月末을 基礎로 二割乃至六割 再成고무는 同三割乃至 六割의 引下로되여잇다 그리고 海上運賃에關하야서는 이미 今月一日부터旣報한바와가티 海運은 六割引下로되여엿다 海上運賃에 關하야서는 어떠 今月一日부터 旣報한바와가티 海運自治統制委員會의 決定에基하야 標準傭船料와 밋運賃引下가 自治的으로 實行되고엇다

臺灣米輸出管理의 農林、拓務省協議要項

【東京電話同盟】臺灣米輸出管理에 關하야는 去月三十日關係官廳會議에서 原則에意見의 一致를 보앗스므로 爾來周東米穀、植產局長과의 사이에 具體的細目에 對한折衝을 續行하여오든바 겨우成案을 어덧스므로 四日農林、拓務兩省間에서 左와如히公文書를 交換하엿다 이多年懸案으로되어잇는米穀配給會社案을來議會에 提案하게되는 것은 거의確定的으로보이며 그리고 米穀市場에對한 國家統制、操作力의一層强化가 注目되고엇다

"兩省協議要項"
一、內外地를通한 米穀需給推算을 一定年度의 生產目標를樹立하고 減反等의事態를 招來치안토록 米穀資金의確保를期함
二、過去의 月別移出狀況에基하야 月別移出計畫을樹立함
三、臺灣米의 內地販賣를 農林省에委託하고 米穀配給會社로하여금 販賣를代行케함
四、米穀配給會社는 原則으로自己가 經營하는市場을通하야受託米를 現在의 臺灣米移入業者에게賣함
五、米穀配給會社는 販賣契約이 成立될때마다 農林省과 臺灣總督府에 報告하고移出港에서 農林省係官立會下에 現物引渡를 行함
六、總督府는 配給會社에 對하야 手數料로서 相當金額을交付함
七、配給會社가 成立되기까지의過渡에는 現在의 臺灣米移入業者로하여금 販賣會社를 組織케하고 細目에 對하야는 그때에 協議함

爲先戰鬪行爲中止 蘇聯邦側에提議 外務省情報部長談

【東京電話同盟】張鼓峯을 中心으로한 國境紛爭事件에 對하야 帝國政府는 事件을 擴大시키지안코 平和的으로 解決할 方針을 堅持하고 蘇聯側의 거듭되는 不法越境、不法射擊에도 不拘하고 隱忍自重하야 앞서 在莫斯科重光大使에게 嚴重抗議토록訓令을 發하엿스나 다시 平和的處理를 圖謀하고저 雙方의 戰鬪行爲를 停止할것을 提議키로 決定하고 四日午前十時 스메타닌 代理大使를 外務省에 招致하고 堀內次官으로부터右提議를手交하야 本國政府에 傳達하도록 依賴하엿다는데 右에 關하야 外務省은 同夜十時 如左한 情報部長談을 發表하엿다

情報部長談 八月四日午前十時堀內次官은 스메타닌 代理大使를 招致하고 雙方의 戰鬪行爲 停止에 關하야 提議한 事實을 至急히 本國政府에 傳達하야 回答을 어도록 要求한바엿섯다 右重大한 我方의 提議에 對하야 蘇聯側이 果然如何한態度에나올른지는 곳逆睹하기어려우나 大局的見地에서서 本件解決方法의 成否는 오직 蘇聯側 態度如何에 달엿다할것이다

外交交涉開始!

【莫斯科四日特派員發】荻野同盟 重光駐蘇大使는四日午後一時蘇聯外務人民委員部로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을 訪問하고 本省의 訓令에 基하야 張鼓峯事件에 關한交涉을 開始하엿다

支那艦船장크等 外國旗로擬裝 海軍徹底攻擊方針決定

【上海四日發同盟】我海軍當局에서는 앞서 長江上流區域에잇는 第三國艦船의 上流撤退와 및 所在通知를勸告를 第三國에 對하야 再三通告한結果 現在 九江에는 英米軍艦各一隻 漢口에는 英艦四隻 米艦三隻 佛伊艦各一隻이 碇泊中인것이 明瞭하게되여 我海軍에서는 此等艦艇에는 可及한限 被害를 미치지안토록 注意하고 잇는바 九江陷落에 狼狽되어 我溯江部隊가 水路로 漢口를 攻擊하리라는 恐怖에 떨고잇는 支那側에서는 九江上流各處에 장크、汽艇、砲艦等을 各國國旗로써 擬裝하고必死的으로 機雷敷設防材設置를行하고잇다 卽 기중에는 佛國、伊太利等의 外各國國旗를 揭揚한 大小장크群이 黃石港附近의 장크及小型汽艇은獨逸、佛國兩國國旗를 海州岳州附近에서는 砲艦이 모두 佛國國旗를 揭揚하고 各其 活潑하게 軍事施設을 備蔽하고 엇는것이 明確하게 되엿스므로 海軍에서는 前記와가티 通告하여온 艦船以外의 第三國 國旗를 揭揚한 船舶은 모두 支那側의 卑劣한 擬裝에 依한 것으로 認定하고 이에對하야 容赦업시 攻擊을加하기로되엿다

南京逆襲機 一機를擊墜

【上海三日發同盟】中支軍午後九時三十分發表 今三日午前八時十四分頃敵機는 約十分동안 三機編隊로써 二回에亘하야 南京에 來襲하엿스므로竹田部隊森岡部隊는 二機로써 이것을邀擊하며 少年航空兵二期生 吉田伍長은重會의攻擊效果를내어 보기조케敵一機를擊墜하엿다 我方은損害업다

夕刊後市況 (四日)

◆各地期米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	[illegible]
釜山	—	—	[illegible]
群山	—	[illegible]	[illegible]
木浦	—	—	[illegible]
下關	—	—	[illegible]
名古	—	—	[illegible]

◆各地商品後引◆

	當限	先限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福井人絹	[illegible]	—
橫濱生糸	[illegible]	[illegible]

最高의 治病劑
어을빈 魚乙彬
만병수정 萬病水錠
體毒과病毒을 驅逐하라
一瓶 金二圓五十錢

萬病水錠 適應病名圖

보재약정 補材藥錠 一瓶金二圓六十錢
慢性胃腸病 만성위장병 神經衰弱 신경쇠약 重病回復 중병회복 動脈硬化 동맥경화 精力減退 정력감퇴 食慾不進 식욕부진 體質虛弱 체질허약 心臟諸症 심장제증

金鷄納 二十五錠入 金三圓 十錠入 金一圓六十錢
補材膏藥 화상·태독·종기·두창 창상 金五十錢
疥瘡膏 모든옴병 金五十錢

◆廣告冊進呈 ◆僞造藥注意
朝鮮釜山府榮町
魚乙彬製藥株式會社
電一九三九番 振替釜山五〇〇

岩角에는섬색시들 明沙우엔海棠열기

漁場업는섬中에는農產林產이大宗

海班 第四站 安眠島 ③ 文 李有稙 寫 [illegible]

뭏가리 꾸불터진 언덕을따라 무수한 해당화가 피여잇고 그우는 푸른소나무가 가리워잇고 밀려드는물결에 허물어저가는 언덕미테는 [illegible]보다도 고흔 모래가보드랍게 깔려잇다 바다한복판으로부터 내밀기는듯 쪼겨오는물결은 흉흔을물고 흑은낫게 언덕미테부서지며 천파만파가 부듸처깔려간다가 다시암수되여 모래를긁고 나간다 쏴—— 쏴—— 파도부서지는 소리다 소리만들어도 시원한데 이제 눈아페보고섯스니 몸에는 소름이 끼처진다

아페는 무변대해 그우를스치오는바람은 가슴에 답답함이여든다

하반신(下半身)을 바다속에감추고잇는 매봉재(鷹峰)그곳 소나무로부터 날려가는 백구(白鷗)의한떼 고요도하다 멀리 바다바게잇는듯 가마아득한 범선 아마 낙시배인가보다

여기는 안면도의 장태발전에 첫손가락을꼽는 방포(防浦)해수욕장의 절경이다 언덕우에잇는 수만평의 벌판은 별장(別莊)지대로 유망한곳이오 바다에연한 백사장(白沙場)으로는 그기리가 유나머 길어서 원산(元山)의명사십리와는 어멀론이다 해안에는 푸른솔을 고웁도록 수만분해안과 겨겨다가 절경어느러서잇는 천을섬 무성하나가 되게(景)아닌가업다

방포해수욕장까지고 남쪽으로 조흘어면 꽃지(花地)해수욕장어잇다 방포와는 언덕하나를떠저잇스니 화지는 방포의연장편해안으로볼수도잇다

뇌호내해(瀨戶內海)의 수마(須磨)명석(明石)을 보는듯하고 함경선(咸鏡線)의 동해안 풍경을 생각케한다 천아름다운개도 못생기거업고 흉한너도 거저지내기에는 아까울만큼 아름다웁다 그러나 아쉬운 어곳을찾는사람어업서서 쓸쓸하다

◇——◇

조수빠진뒤의 바다는 보기조흔게못된다 물이 출렁거릴때에는 천하의절경이로선다니 물업는바다는 욕지보다도 너저분하다

섬색씨들은 삼삼오오 짝을지어 물빠진바다에서 조개를판다 [illegible] 바위틈을 어르만지며 [illegible] 우리들의 [illegible] 섬색씨들은 [illegible] 사진기를 [illegible] 섬색씨들은 사지를 [illegible] 그들의세상은 이 [illegible]

◇——◇

어항(漁港)업는 안면도이니 고기업는 바다이다 [illegible] 어업조합에서는 안면도의 남쪽 고남리(古南里)앞바다에 갓해(?) [illegible] 한것이언스니 지나가는 나그네로도 섭섭한 생각이난다 고기를차지면 칠산도(七山島)나 어청도(於靑島)로 나가야한다 어

[illegible] 안면도의 주요산물은 [illegible] 안면도의 [illegible] 구만여명에 [illegible] 작년에는 [illegible]

山으로 바다로 競涼特急

◀八月五日(金曜)陰七月初十日 干支己巳 ◀日出午前五時四十分 ◀日南中午後零時三十九分 ◀日入午後七時三十九分 ◀月出午後三時八分 ◀滿潮(仁川)午前十一時四十五分 午後十一時四十五分

物價의公定價格 來月中엔制定公布

物價委員會는上旬中에具體化

目標는事變前의時勢로!

사변이래 폭리취체령의 나팔소리가 울리지 어미오래건만여전히 올라만가는 물가를 억제코저 취체령을 고치기 어미세번째다 이번에는 가격표시의명령까지 내리어 이것이 실시된지도 벌서 한주일이 넘엇는데 명령은 그대로 불철저하야 따도처럼 충돌거리는 물가때문에 일반민중의 생활이 여지가업시 딱하고 안정되지못한상태그대로다 그리하야 벌서 여러차례 논의된바가 잇는 취체의 엄중따 가격의공정 이라는 두가지인데 조선총독부안에 설치될 까우원회(物價委員會)는대체로기초준비가 갓섯스므로 아마오는십일전후로 그실현을 보게될모양이다 가격공정이란 결국이물까위원회가 구성된다음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에서 물품따라 그시세를 저울질하야 공정가격을 설정하고 이것이 중앙위원회를 거처 공포케될터인데 가격공정은 아모래도 팔월에가지안코는 실현되기 어려우리라고한다 어공정가격이 생긴이후의 폭리취체를 철저히할것은 물론이겟지만은 그전이라고해서 너무지나친 폭리(暴利)에흐르는 현의가잇고 이때문에 고의로 가격표시에응하지 안흘분더러 폭리를 그대로 탐하는상인이 업지안혼데 이것을 그대로 버려둘수업는바라하야 총독부상공과(商工課)에서는 상가(商街)를 순찰하고 실제조사를행한후 지금까지의 지나친판대수의를 벼리도록 대책을 강구하리라고한다

價格表示怠慢을 嚴重히團束

商工課山本事務官 談

물까위원회는 대체로 성안(成案)을 어덧스므로 엉흘전후로 구체화될터인데 그것보는 대체로 내지와가를것이다 그다음에 공정가격을 설정하게될터로 어것은 물건시세를 신중히검토해야겟스므로 시일이 걸닐것으로생각한다 그러라고해서 이미시행허고잇는 가격표시가 철저히되지안는다는것은 유감이다 지금까지는제일선에서 상공자의인식따 협력에만 치중하고 판대히대해왓스나 그중에도 악의로가격표시명령에위반하는자도 엇지못함므로 상공과에서는 어제부터는 상점을시찰해보고 [illegible] 방침을 세우려고 생각하고엇다

式祭典의制服

五日總督府令發布

어미 공중(宮中)의 여러가지 식제전(式祭典)에 복장을 어치청(御治定)하엿는데따라서 지나사변중 당분간 판대대사 조선신궁 제식중 제일대제, 예제제에 참향될목장에대하야 오날총독부령으로 발포키로하엿다

어하의 선사제전에잇서서도 그 지안정도로 적당히정하기로되엿다 복장은 여기준해서 [illegible]

南總督의國民服

一金十六圓也의混紡

견장(肩章)을 붓처야 되느니 법제국(法制局)의 정식복제(服制)개정이 잇서야되느니 까다로운 관료(官僚)다운 파란을 어르켜오던 총독부의 제복제정문제도 남총독(南總督)의 영단(英斷)으로 결국은 국민복(國民服)으로 낙차이되고만셈인데 사실 총독은 새로지은 제복을 맨처나게 채려입고 등청햇다스 메키로된 금만초 그리고는 허리에 줄근동여면 뻰드의모양도 그럴듯하여 흥사히 방풍다분단상이라는 인상을 보는사람으로하여금 갓게하엿다 근안(近眼)비서관의말을 듯건대 정까는 겨우십육원이고 렬홍부에 스·프가 사분나석긴 지극히경제적인 혼방교제복이라고한다

飮毒自殺

일일오후 섯시경부

내하왕십리정(下往十里)이백팔십륙번지의 상업김상철(金相哲)이가 취잠는약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곳부근중의원(醫院)의원에엄원 응급치료를하엿스나 시간은 어머는서 동육시경 절명하엿다한다 집안사람가라에게 남기고자서등으로 미루어보아 자살인것은 확실한데 원인은 작년부터 매병으로 고생해오던터에 최근에와서는 소생할가망이업서 보이게되자 극도로세상을비관한것이라한다

賣名慾利用한 幽靈出版業者

東署에서引致取調中

일반의매명욕(賣名慾)을 미끼로잡어 돈버리를해보려다가 못잡혀어서 잇다—시내동대문서에서는 수일전 시내모처에서 청년한명을검거하고 비밀리에 무엇인지 엄중히조사하고잇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청년은 자칭모신문사기자 김모(金某)로 가금이라고는 한푼도업는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로 본구락부(本俱樂部)라는 유령출판사의간판을 차려가지고 손으로만드러 노코서는 전조선각지의 소의명사들을위하야 명사록을 출판한다며 [illegible] 서 청조에달어서는 사건은의외의방면으로 버저질듯하다고한다

主人時計먹엇다

이나무다메에서

부내 종로 오정 [illegible] 정순애(鄭順愛)의 [illegible]에서 고용인노릇을하고잇든 김영식(金永植)은 주어오는에가 여자어지 비교적 세사에 어두운것을 기회로 여러가지의 감언리설로 화당을속이돈후 엄마전 수선해다달라는 순애의 팔독시계와 현금지원을가지고 어대로어지 행방을 감추어버렷다는데 방금 종로서에서 계로상

出版文化에赤信號

新聞用紙等制限

新聞은一割二分雜誌二割

物資調整局、案을內示

[東京電話同盟] 물자조정국에서 기획원(企劃院)과정부의중요면비요지음는 종이절약의방법에관하야 기획성안을 어덧스므로 축내(內) 각자 조정국차장은 오날 방송유력자가부를 초청하야 양해를구하엿는데 [illegible] 간담회를헤이다

그런데 종이절약방침은 대체다음과갓다

一、신문용지는 작년칠월이전부터의 신문용지의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하야 일할이분의 공급제한 그밧게는 성장이상의 공급제한을한다

一、신문용지의 공급제한은 왕자제지(王子製紙)북월(北越)제지의 두회사에서하고 그밧근 제지연합회에서한다 어외용지에 단행본과 공공단체의 인쇄용용지의공급제한도한다

一、종이의 공급제한은 우선상반기(上半期)중 [illegible] 세한다

一、종이의 공급제한에 대하야는상공성 통제국에서 고수으로 달리실시하다

一、실시기일에정은 신문용지일정에하고 신문이외는 어떠다 느질모양이다

金剛山一帶重石鑛

積極許可키로決定

資源難아래風致만을에길수업다는見地에서

盜堀問題도自然解消?

천하의절승 금강산일대의 중석광(重石鑛)허가문제와 도굴(盜掘)문제는 풍치보존과 자원개발의상극 합법적수단과 비합법적수단의 공존등 어것이 커다란사회문제화하야 [illegible] 난하여 어미오래다 그러나 일즉 그발론이 보류되어 금단의자원으로 장차로엇던 금강산의중석을 캐내게될동기자 현재장기전하의 군수(軍需)자원의원활에 엇든것이라 그중안 총독부당국으로서도 그적극적태도를 풍치보존에 롱것이냐 자원개발에 몰것이냐는 결과지에서 주저하고 엇스면서 도굴꾼제에 머리를알코 엇섯는데 일명비상시에는 비상수단이 필요한것이어서 마침내 그개발에 적극적태도를 가지기로되여 아모로도 금강산일대의 중석광개발을 적극적으로허가하기로 되엇다고한다 여러하야 어 금단의자원은 드디어 적극적개발을 보게되엇고 따라서 소란하던 도굴문제도 아모로 허가될 광업권자의자위수단에 의하야 저절로 해소될것이라고 당국은 보고잇다

결국 현하물자자원의 문제로보아 보승상문제만을 논하기도어렵게되여 여러가지 현의한결과 광산에서 광업허가를 내주지안는다 하드리도 비합법수단어로행하야 도굴이성행하는것이지금 현편이니 문제를 어떠케처결할것이냐하는 문제에도달한것이다 그리하야 광산파의 의견으로서는 어기회에 차라리적극적으로 중석개발을 허락하야광업권을 내주게되면 저이중석의 군수자원의공급원활의 목적을달할것이오 동시 광업권자가 자기권익을 옹호하는어해관계로자연히지킬터이므로 도굴이라는제로 업서질것이다 그런데 도굴하는사람은 문제그대로 남몰래파내는것이라 그들에게는 풍치도업고 어떤명령도 엇슬수업는터이나 엔정한 광업권을허가해서 광업자에게 허가를할때 풍치보존에대하야 엄중한 주의를가하고 여기위반하지안토록 적극감독하면 오히려 풍치보존문제는 허가하기전의 도굴시대보다는훨신나흘것이라는것이다 물론 도굴도업고 합법적개발도업스면 풍치보존에 유감어 업슬것이나 때가비상시라 전시에업서서아니될중석을 풍치가 아까와 무더둘수업는처지임 형편이라는것이 어떤 금강산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된 근본이유라고한다 그러하야 어미보송수인여안에서 허가된것이 여섯건에달하고 아프로 적당한 광구는자꾸허가할방침으로되여잇다

風致는依然保護

盜堀者의取締가困難한以上

許可監督이效果的

에 비상한 전시에잇서서 중석의 군수공급은 [illegible] 그러나 풍치보존의 [illegible]

北朝鮮行勞働者

다시五百六十名

咸北鐵道工事場으로輸送

今春以來三萬餘名

남에서 북으로북으로 드러가는조선로동자는 이번에 또다시오백육십명을 보내게되엇다 그리하야 지난사월부터 함경북도로까지 남조선에서 서북조선으로 수송한 로동자는 약삼만[illegible] 각도의도 도내알선(道內斡旋)을 향하면그러 오만에가가운 수자에 달하리라고한다 어제오는 [illegible] 구일까지경성역 용산(龍山)역을거처서북으로 드러가는 총독부알선노동자는 다음과갓다

◀八月七日午後七時二十分 京城驛通過——慶南에서 咸北訓戎鐵道工事場으로(百四十八人)

◀八月八日午前七時十二分 京城驛通過——慶南에서 咸北線鐵道工事場으로五十人

◀八月八日午後七時三十分京城驛通過——慶南에서咸北訓戎鐵道工事場으로 一百人

◀八月九日午前一時二十分龍北驛通過——慶南에서 咸北線鐵工事場으로 一百七十九人

電話의高價賣買

遞信局對策講究

遞信省의取締方策에順應하야

今年抽籤分期於架設

물자절약은 전화매매업자에게까지 간한 영향을 주고엿다 전시체제가 요구하는 물자절약에의하야 수요가 격증하는 전화의증설은 아프로 상당히 어렵게될형편으로 전화매매가 개인업자의손에 매개저잇는 경성시내전화시세는 하매 칠백원까지 내려갓든것이 요사히는 다시오르기시작하야 천원대를 상하하고잇다 중앙기관으로서 그사명이 중대한 전화가시 어비상시를통하야서 일부가상배들중에서 좌우되는것은 단연 용인할수업는사실이라고하야 체신성에서는 전화매매업자를 폐지시키려는 계획을 화행하게 되엿는데 조선에도 체신국에서 어에따라 종당한 대책을 강구 하고엿는중이다 이에 대하야 산전(山田)체신국장은 상업아래와가티 말하엿다 조선만은 아직전화가 내지에비교하야 그발전이 퍽신 뒤떠러저잇는터이므로 어특수사정을 상당히 중요하게참작할려어다 하여간통자가 귀하다때로 금년도에 주천경정한 지급전화만은 모다개통하도록 따련할작정이다 도시중의 전화매매업자에대해서도 적당한대책을 연구중이다

東京下關間

鐵道線全通

[大阪電話同盟] 동해도선(東海道線)중에서 불통중이던 대판, 신호(神戶)간 [illegible]사이철도는 대판철도국 필사의 복구작업으로 사일오후두시에 복구되여 사흘만에 동경, 하관(下關)간이 어여여 전통케되엿다

失戀飮毒危篤

[illegible] 조선권번기생 [illegible] 실연끝에 [illegible] 약을먹고 [illegible] 위독하다

昨日漢江에서

十三歲少年溺死

사일오후한시사십분경 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십육번지 김춘상(金春相)씨의 셋재아들로 옥소학교(玉小學校)오년생인 김희영(金熙榮)이란소년은 문지정(芝町)한강에서 수영하다가 빠저죽엇는데 신체는 오후여섯시경에 차저내엿다

廣告

류마치와神經痛根治됨

痛症이빨리除去되는데놀래

神經痛 류마치로 手足의매디매디나 筋肉, 關節, 腰, 肋間, 坐骨等이 아프거나 부어서 苦生하는 분이면 慢性이던 急性이던 [illegible] 病院에 [illegible] 多年間 [illegible] 病症이업서지고 부은기도나리게 되는데는 再發하잔는것으로 칭찬 [illegible] 說明書를 [illegible] 寶貴로提供합니다 五十錢 二十日分二圓五十錢 [illegible] 東京市本鄕區 [illegible] 豊山院領藥房

平和產業退却으로

失業者救濟問題化

委員會를不遠에組織키로

總督府·方今立案中

전시경제하의 물자난(物資難) 자금난(資金難)에 빠저잇는 평화산업(平和產業)은 극히한산하야저서 불이마대하업자를내지아니할수업는 운명에봉착하엿스므로 총독부에서는 국가총동원법제삼조를 발동시켜서 이들종업원(從業員)중 [illegible]수잇는자는 군수공업기타중공업(重工業)과수출증산(輸出增產)산업방면공장에 전업을시기고 그나머지 전업불가능의직공 여직공 유년(幼年)직공들은 여비를지급하야 각각귀향시켜가내직업(家內職業)기타여러가지시설을하야 종업하도록한다는것은 총독부의복안으로 서본사회과장(西本社會課長)이 방금 [illegible] 평화산업으로부터 퇴각되어전업불능한 실업자들에 대하야는 총독부에서는 새로운기관시설을기획하기로되엿다 원론적으로 전업자는 상공과에서 지도알선하고 실업자는 사회과에서 지도구제하는것이나 이것보다는 좀더전문적이며 강력적인계획을 시설하야 이들을 구제하고자 실업자구제위원회(失業者救濟委員會)를 조직할터이라는데 [illegible] 구체안성에 착수할모양이다 하여간 실업자들을 위하야 내지에서는 이미조직되고 소기의 목적달성에 활약하는중이다

鳴旨漁組指導

員公金橫領

경남김해군 명지면진목리(金海郡鳴旨面眞木里) [illegible]번지명지어업조합지도원(鳴旨漁組指導員) 이진석(李鎭奭)은 지난 [illegible] 조합금 [illegible]원을횡령한채 이래종적이 묘연하엿든바 경성지방에 잠적한듯하다고 하야 사일김해서로부터 경기도 형사과에 지명수배가 왓스므로 서내각서서는 그행방을염탐중이다

종딱

사일경성지방법원에서는 독직판관(瀆職判官)에게 어범부형이잇섯다

◇

정도(正道)를 떠난 행동이면 관리민중을 물론하고 처벌의 판결을나리는것은 당연의당연!

◇

그러나 관리중에도 범죄를 적발경계하는 처지에잇는 경찰관에서 어러케사건에 엇는것은 유감의유감!

◇

근래경찰관, 경찰관의부정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illegible] 문제이지만 민중을위해서도 염려에엄려!

貞操蹂躪卅餘件

金品詐取萬餘圓

警察部에서二個月間을取調

詐欺結婚魔遂送局

[illegible] 결혼사기(結婚詐欺)를 [illegible] 경기도형사과 취조를마치고 [illegible]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엿는데 [illegible]

스포ー츠

滿洲遠征第二戰에 慶應院球連勝

[大連] 京城에 遠征한 慶應第二戰인 對大連滿俱의 第二回戰은 지난一日午後五時二十分부터 大連滿俱球場에서 [illegible] 三對零으로 慶應連勝하엿다

慶應 3 (2:0 1:0) 0 滿洲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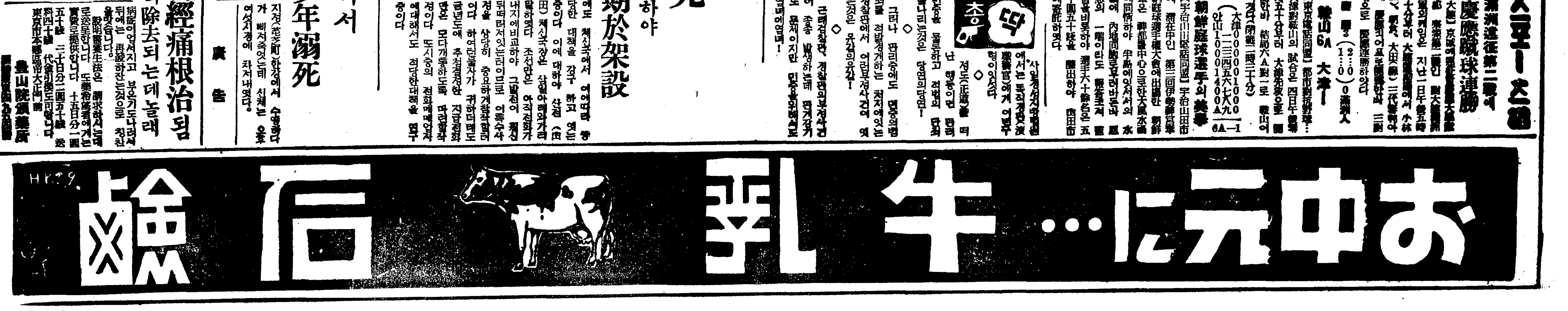
龍山 6A 大津 1

[東京電話同盟] 都市對抗野球… 大津對龍山의 試合은 四日午後一時五十分부터 大津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六A對一로 龍山이 이겻다(時間二時三十分)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大津	0	0	0	0	0	1	0	0	0	1
龍山	1	0	0	0	1	4	0	0	A	6A

朝鮮庭球選手의美擧

[宇治山田電話同盟] 宇治山田市에 滯在中인 第三回伊勢神宮奉納庭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한 朝鮮軍은 [illegible] 大風水害에 同情하야 [illegible] 選手六十餘名은 五十圓五十錢을 醵出하야 宇治山田市에 寄託하엿다



中部版

營業時間違反하는 業者는 斷乎處罰
紅燈街에 嚴重注意

非常時流에 難航하는 네온街의 裏面相打診
營業時間短縮反響
業者·妓生·女給自省之秋

비상시국에 처한총후의국민으로서 남(?)게까지 술과 게집을 상대로하여 금전을낭비하야 소모함은 당치아니함이라해서 서내각요리점빠—·카페—의 영업시간을 밤열두시까지로 제한이된관계로 요리집장고소리도 머저지게된다하는것을 ...

料理店
엽서진 二次會로 子正以後는 閑散
市內各料亭約三割減收

영업시간이 제한됨을 따라 각요리집에서 밧게되는 타격은 상상이상으로크다고한다。 ...

妓生
落鄕者도 續出
서리마진 千三百妓生

카페·빠—
카페·빠—女給들 新京·北京에 進出

商業에 失敗코 飮毒自殺未遂

慶北安東에서도 納稅取締座談會

馬山商議理事 會員熊次內定

大豊豫想든 京畿道 稻熱病의 被害不少
昨年最高記錄三百廿萬石의 一割減收?
穗莖稻熱病의 發生을 警戒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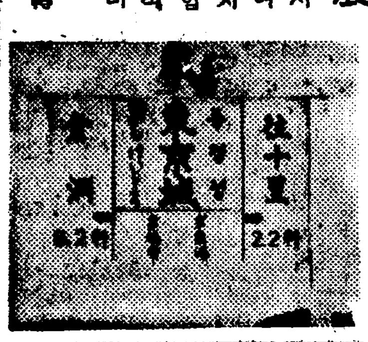
水産物入荷激增
價格도 十貫에 一圓高
京城府營水産市場七月中集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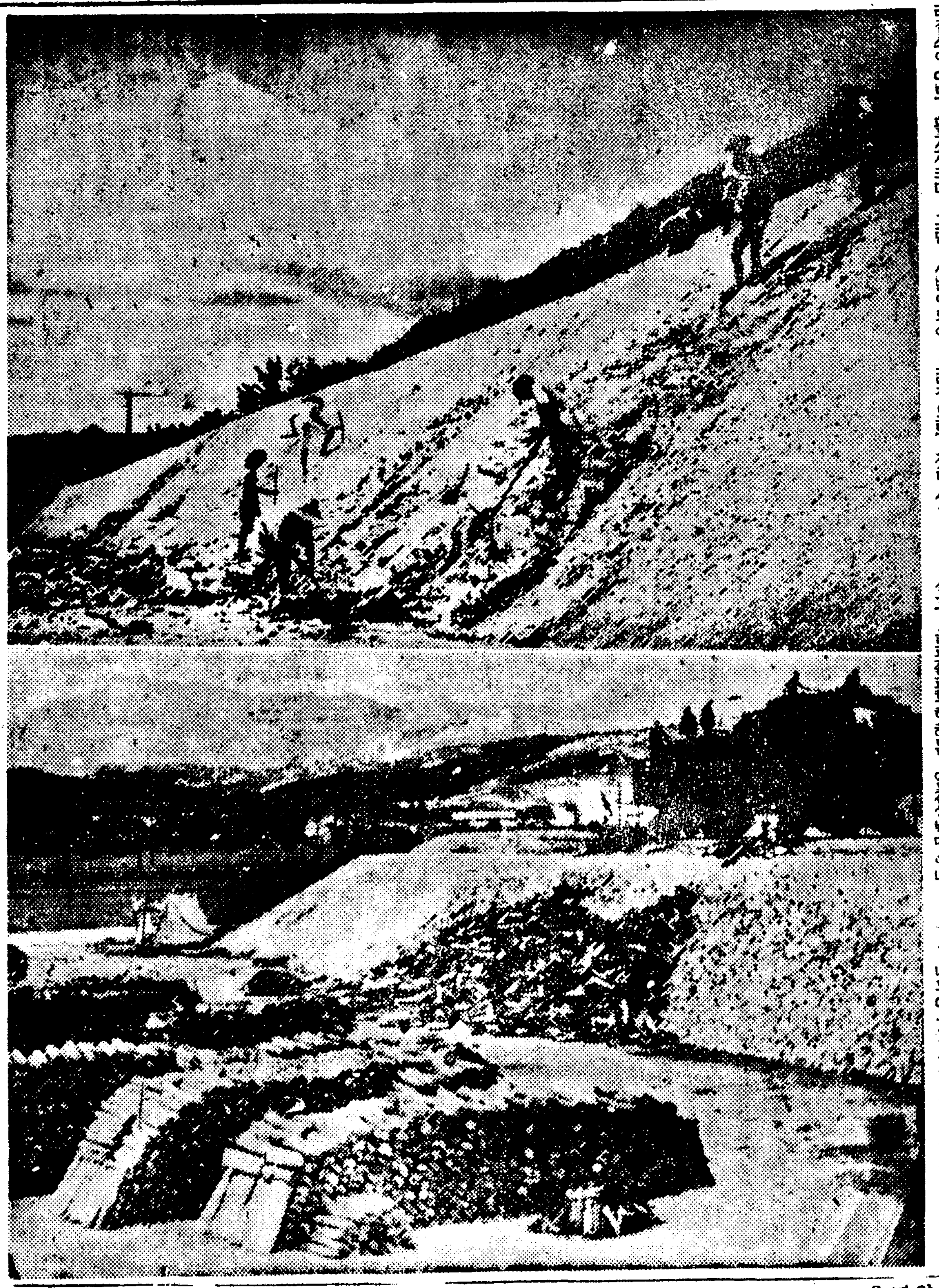
國民總動員의 精神 都會地에 不徹底
郡部民의 生活은 比較的自肅自戒에 邁進
京畿道聯盟에서 強調策講究

國民精神總動員 細胞團體를 促成
始興郡各村落單位로

京城의 東便關門인 東京城의 發展

부내봉래정(蓬萊町)경성역에잇던 시탄시장(柴炭市場)은 지난달십오일부터 드디어 동경성역(東京城驛)으로 이전하여서 이제는 경성으로오는 나무는 모두 동경성역 시탄광장으로 내려노케 되엇는데 이새로운 나뭇장과함께 동경성역에서 왕십리(往十里)로다가는 도로공사도 착착진행되어 대경성의 동쪽관문인 동경성은 이로부터 한층더 활발하게 발전되어가고잇다 (上은 東京城驛에서 往十里로가는 新作路工事 下는 移轉해온지 月餘된柴炭市場)





回漕業者를 網羅 海上防護團結成
仁川神社에서 擧式

竊盜團背後에 贓物故買業者

小學敎員에게 實彈射擊訓練

새町會의 新總代?
併合統一된 町會의 注目되는 陣容編成
府尹이 指名한 準備委員이 銓衡委員을 選定
銓衡委員은 各町總代를 選定

工夫一名慘死

有毒酢素를 販賣 平昌署에서 發見押收
京畿道에서 檢査中, 販賣를 停止

職業別로 移動式의 防諜座談會開催
鍾路署管內의 各種營業者를 召集
趣旨徹底와 積極的協力要望

鎭海署에서도 虎列刺豫防注射

勤勞報國再強化
始興郡職員이 率先實行

楊平郡民의 熱誠 國防獻金이 遝至

仁川朝鮮人側 商人親睦會組織
에누리撤廢도 議決

淸州嬰兒屍遺棄 犯罪原因은 迷信

淸州郡邑面長會議

人事集會

今夜
東京在學生拳鬪招聘戰
今五日午後七時半·於京城運動場에서

主催 朝鮮拳鬪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

夏의 育兒에
ラクトーゲン 라구도—겐
腐敗안는 育兒料
安心하고먹일수있는
全國有名百貨店·食料品店·藥局에잇슴

長篇小說

薄命 (66)

韓龍雲 作
鄭玄雄 畫

세주가 十七

『그럼 어떠케하고 가게 되얏서요?』

말을 계속하는 순영이는 자기의 가는 조건을 알고시펏다

『어떠케라니 영매(永賣)는 아니다 내가 너를 영매할것갓흐냐 삼년만 가서잇다오라가 그러면 그뒤에는 내가 가고시퍼하면 올라두 그러치 아니하면 굶으나 먹으나 나하고 가티살게 되든지 또조은데로 시집을 가게되든지그러케 될것이다 네몸너를 보내고시퍼 보내것니 너도 아다시피 하도 어려우니까 너를 양육한 비용이나 갑가하고 하는것이다 너를 양육한 비용이 전부 벗어다 리자는 라 또 점쟁이 말이 네가후와 삼년만 자서 고생을 해 느리나고 할수가 잇니 하니 분이 조아서 오라잔어 잘잘 것다구 하더라지 하니까 내 복으로 해도 잘졸게 될것이다』

송씨는 술어취한 중이라도 다년간 경험과 수단과 말 솜씨는 여전하얏다

『차금은 얼마나 되야요?』

『차금은 말로는 칠백원 여라고 하지마는 구문이니 무엇어니 이것때고 저것때고 정작 내손에 드러오는것은 얼마되지 안는다』

『칠백원 이야요?』

순영이는 다시금 놀래엿다 자기가 생장한 어래로 칠백원이란 돈을 구경한일도 업고 자기 부업의 전재산을 다 파라도 칠백원어치가 못될터이대 자기는 불과 삼년동안의 차금으로 그러케 만한돈을 밧게된 것은 자기에게 그만한 가치가 잇다는것을 세상이 인정하는것이오 또 자기보다 먼저 팔려간 옥이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별로 자기에게 빠질것이업슬뿐 아니라 그아이는 보통학교라도 졸업을 하얏고 또그러한데에 경험도 엇서서 오히려 자기보다 낫다고할터인데 삼년 차금으로 삼백원밧게 못밧든것을 확실히 기억하는 터인대 자기는 그러한데에 경험도 업는 초대로서 대번에 칠백원을 밧게 되는것은 옥이와 가튼 기한에 차금으로는 배가 더되는터 인즉 순영이는 부지중에 우월감이 나서 마음에 슬그머니 거햇다

『그래 요새돈 칠백원이 얼마 되는줄 아니 푸러노코 쓰라면 쓰것이 업다』

『그러면 그것이 양육비는 될가요?』

『세세히 치면 올라도 그러치 덩 될것이다 네가 엿해동안에 먹으면 얼마를 먹엇겟니 옷갑하고 월사금하고 그뿐이지 하니까 칠백원이면 양육비는 될것이다』

송씨가 도반또반된 정신가튼면 물론 그것만으로는 양육비가 어림도 업다고 하엿슬것인 대 한잔먹은 김이라 별것이어떠케 도라가는줄 모르고 사실대로 말하엿다

『그러면 여북이나 조아요』

순영이는 자기의 대강 짐작으로만도 엿해동안에 자기때문에 비용난것이 아모리 늣자버 처더라도 그여섯 더될것갓지아니하엿스나 송씨의 엄에서 코런말이 나오는것은 대단히 제했다 순영이는 그사이에 동무들이란지 다른 아는사람에게 랄들어 만하엿스므로 듯고보는 경험과 지식도 그방면의것이면 하엿다 그리하야 송씨따위의뚜쟁이 조종으로 『사랑장사』를하는 『사회』에 엿서서는 거기에대한 경위가 잇는것을 아러다 그들이 기집애들을 불행한 부모나 친척에게서 돈을주고 사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돈과 양육비만 무러주면 도로 버서날수가 엇는것이요 더구나 돈을주고 산것이 아니라 절모르는 미성년(未成年)을 가면히되 여념데 대하여는 그어어에게대한 정당한 권리자면잇다면 저저라도 차저내일수가 엇는것이오 그러치 못한 경우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새 어의 양육비만 무러주면 아무때든 저 자유의 몸이 될수가 엇는 것을 아랏든 것이다 그러하야 언제든지 도려만 잇스면 양육비를 무러주고 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젓섯는데 한때의 차금으로 양육비가 된다는 송씨의 말을 드른지라 당장에 올거맨 돼사실을 풀르고 허공으로 날어가는듯 하얏다 그러나 그러케 된다고 하야도 삼년뒤의일이라 아직은 공상에 지나지못하엿다

송씨는 내일 떠나야 할터이니 행장을 차리라는 말을 부탁하고 어디든지 쓰라고 돈집원을 주고서 취기를 이기지못하야 그자리에 쓰러진다

中央舞臺公演 "海賊"

(上) 내가 "에지-드"를 죽여 나는 "에지-드"를救하기위해서 나는 아들여섯을다죽엿다그러나그러타고내가 울줄아느냐? 내아들들을도로 今白馬를타고 저나라로 달려갈것이다 나도白馬를타고 쫓차갈터이다……그러나 늘은나무에도 푸른가지가잇는 것이야 나는 그늘은나무요

『도로로프』는 푸른가지다 어……문젤『도로로프』가죽엿?……그러나 나는통지 안을테다……』 여것은會長 "올로프"가 二幕一場에서 意外에도 마즈막自己아들의 죽엄을 알때까지의 그의힘찬台詞다 【寫眞上은 "올로프"가 誤解때문에 殺害當한 아들 "도로로프"를안고나가는데다】

(下) 어디든지 謀害하고 叛逆하는 惡黨이엇든것이다 아들일곱을죽인 "올로프"는 海賊에 염금아들을두고 悲壯한話를 읽는다 그러므로 悽愴한 여름은 이에게도술 풍이오라 향디운 人間의눈물이 빼여서 솟는다 그러나 여기서 惡黨을모리 내는最後의장송이兩便에벌려 처마 버다는 怒吼하고 雷霆霹靂이 天地를 振動하야 모든 人間惡을업새비린다 自然의偉大한舞臺에서 참다운人間의靈魂은 최후도록에서도 淸潔하게울고잇다 【寫眞下는 고레ㅡ軍과激鬪하야차호는光景】

오디라 JODK

農村講座(五日午後七、〇〇)
農道精神
景福中學 姜鎭馨

농도(農道)라는 무엇인가 농도가 가리키는바 그 근본정신(根本精神)은 무엇인가 시국(時局)과 농촌의관계 그리고 전시(戰時)에 처할농민의 각오 이러한것을 먼저말슴하야 현하시국을당면한농촌이어떠한방향(方向)을향하야 나가야되겟는가 그지침(指針)을 여러분과함께 생각하야보랴며 농도의 삼대강령(三大綱領)의한아인 질실강건(質實剛健)의기풍에 대하야 말슴하겟습니다(六日에第二回續講)(끗)

家庭時間(五日前一一、一五)
毒虫에게물리면
醫專病院 張起呂

여름은 독충들이 마음대로날뛰(跋扈)하는때입니다 제일심한 것은 빈대, 모기들이고 이외에 벼룩(蚤) 해서 생각지안는 괴로움을 당하게됩니다 도 벌벌독충에 합법쓰다저나옵니다 얼은들도 괴롭지마는 애기들에게는 더욱 여러한것입니다 마 물린자리를 잘못처리하면는 심하게 여겨돗자야 악화(惡化)해서 생각지안는 괴로움을 당하게됩니다 독충에게 물린거든 어떠한처리를할까 도산에서 물렷을 응급처치(應急處置)를 할것 인자, 어어에 좋은설명 베약, 쥐, 어련것에물렸을때의 주의도 말슴하겟습니다

流氣

『라디오·드라마』와 라디오小說과不卒어엿는 모양이다 그 說이 最近만히늘 의作者자 누군지? 말하자 하나는 大體로 라디오小說 엇고『社會見學』 면 처음兒고보는사람이 만 파 마이크를 通 라는것이다 적어도 三萬以 한 探訪 最近라 上의第一聽取者에게 들려주 디오에는 새로운努力과 자 최가만허진것은 매우 반가 운現象이다 그러나 그만큼 여기對한 聽取者의 慾望도 要求도또 不滿도잇슬것이다 며칠前엔 자 第二放送課에잇는 某氏 의所感으로第二放送의 演藝 프로에對한苦衷을 쓴것을읽 은일이잇거니와 어런點은勿論 理解할수도잇는일이요또 當局者로서 그만큼한苦心이 엿는것 쯤은 또한當然하다 면 當然도한일이다

그러데 最近 라디오小說 과 라디오·드라마에 엿서서 聽取者側으로 두가지 不滿

放送演藝의偏狹性

鮮에는 이方面의人材가 적 다고하더래도 그러케 放送 좀 依賴할수잇는것이요 또多少 香畵 制限할必要까지는 업 지아울까? 最近의放送者는 거의가 興行劇團에 엿는사람 이다 여러가지 依託하저야 便宜가 어 어려 나오는 感이엇 다니면 依託하저야 限하지 안는다 지 안는 것을 全然考 慮하지안을게아니냐 너무나 어니와가 新人어라고하더래 도 新人이어니라 名이 조금도업슬까 하다 어 것은반드시 權威잇는사람에 게 限하라는것이아니요 新 人이라도 新人으로서의 存 在를 도못이해야 聽取者와 에빠저다는것과 자작하면通 俗的이오 低俗하게될 疑懼 도잇으려니와 어떠케든지 再 미잇게한다는 이지·꼬잉 으로 좋은것이 아니가? 眞實로 라디오의使命은 高 尙한趣味와 敎養을 直接的으 로걸려준다는 點에서 文化的 意義를 찾지고 잇는限 어 려한方途는 좀더 改革해나 갈必要가 엿지안을까한다。 잘하지도 못하는사람의作 品으로 불으던 音藝은 이 뒤로 드게되다는 어不滿은 好意 로서 歎迎할問題여어 아니 요 그러하고 라디오의 스 위치를 끄고만 잇슬수도업 는일이니 보고도 못 본다는 다。 좀더 여方面의 打開策은 업슬가? 敢히 一言한다 (勿齋人)

人類浪漫精神의最華!
"레·미제라블" 不遠開封
各國二十五年間九回製作

十九世紀의 文藝作品中에서 『레·미제라블』과 가티 巨匠하면서도 全人類에게 愛讀된 作品은 업슬것이다 一般文藝映畵中에서 어떠케 저 면번이고 거듭된作品들은 다면『椿姫』나『復活』가튼것은 五回以上世界各國에서 製作되엿는데 『레·미제라블』은 前後九回나 映畵化하엿다 即

日本 四回
佛蘭西 三回
米國 二回

合計九回나 銀幕에나타난世界的記錄을 가지고잇다 이것을 다시 仔詳하게紹介한다면

米國―一九一八年 폭스社에서『윌리암·파―남』主演으로『프랑크·로이드』의 監督으로製作된것과 一九三四年『유나이테드』에서『리차드·볼레스라브스키』監督으로 프레데릭·마―취』主演과 폴레슬라브스키―監督으로 製作한 것이다

佛蘭西―佛蘭西에서는 一九一三年 近代劇運動의創始者인『안돈와―느』巨匠이 名優『앙리·크루―스』主演으로제 파려映畵社가製作한것과 一九二三年에는『앙리·페스쿠―르』監督에『자브리엘·자불리오』와『상드라·미로와―프』主演으로 製作한것과 세번재가『레이몽·베르나―르』監督이『파레·나탕映畵』로 製作된 全三部二十六卷의 大作이잇다

日本―日本內地에서는 第一回―井上正夫主演 牛原虛彦監督으로 舞臺는支那
第二回―鳥羽陽之助主演 志波西果監督의日活時代劇舞臺는 幕末
第三回―淺岡信夫 入江다까子主演 內田吐夢監督의『장발장』舞臺는 西南戰爭
第四回―大河內傳次郎主演伊丹萬作監督의 巨人傳

○

이中에서『베르나―르』의監督한『레·미제라블』은 一九三五年『빅톨·유고』의 死後五十周年記念事業의하나로 佛蘭西政府가 이大作의作成을積極的으로 後援한것은勿論이요 佛蘭西映畵界의 名優를 網羅하야 이때까지의 映畵에서는 보지못하든 二十六卷이라는大長篇敍事映畵物을 完成하게에 三年이라는 時日을費하엿다

이映畵는 三部로난호여저서 第一部는 十卷으로 되엿는데『장발장』이 監獄에서나와서 자저꿰는데까저요 第二部는 八卷으로되엿는데 靑年마리우스와當時 佛蘭西社會를 짜고도는 政治的事變等을 主로하야 製作된 가장悽慘하고도 힘찬 表現으로되야 여기貧民『떼나르디에』의一家의 陰慘한 雰圍氣를 第三部(八卷)에서는『코제트』와『마리우스』와의 사랑을 中心으로 마리우스의 가지가지의心理的 또는社會的行動과 더부러『장발장』의運命에까지 이르게되는것이다

―○―

以上의 三部作을 出演하는俳優陣을 一瞥하면 『장발장』에는 이미 우리와 親하여진『아리·보―르』

▲마리우스―쇼콜그랜을하야『貧苦의 曲』에나왓든 美男子 장·세르베
▲코제트―어렷을때는『가비·트리케』커서는新人『조지·가이』이 出演
▲엣뽀닌드―우리同志와『저니사―벨』에 나온『잘·바넬』
▲테나르디에―佛蘭西劇壇의 巨匠인『샤알·듀랑』
▲그외에『마르셀·봐뽀―르』의 夫人『오이다―드·마지스』

外에도 一流의名優가登場하여잇다 이作品의 興行은 今秋慶祝하야 洋畵配給界에 絕大의 重量을 보여줄것이다

寫眞(上)은『장발장』의 아리·보―르 (中)은 市街戰을自由의 위한勵畵 (下)는 마리우쓰(세르베扮)와 코제트(가에르扮)의 러브씬

―附記―日本版은『레·미제라블』飜譯으로 有名한 豊島與志雄氏監修로 決定되엿다

마이크探訪(五日後八、三〇)
朝鮮聲樂研究會에서中繼
DK編成係案

조선성악연구회가 조선소리(주로남도소리여지마는)의 도장(道場)으로 와전(訛傳)되고 연멸(湮滅)되여가는 조선소리에 부흥(復興)을기약하고서 나타나기는 벌써다섯해가되엿다고합니다 오늘은어회원들의 공부하는모양이 들려우고『아-저어로군』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는혹어내실수잇는 명창들의소리도들의실수잇지요

經濟解說(五日後九時)
朝鮮工業組合令의公布
東亞日報 全弘鎭

대륙국책(大陸國策)을수행하는데잇어서 조선은 제일선병참기지(兵站基地)로서 공업화를 추대하게 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국에서도 여러가지로 공업화를 촉진하기위하야 국방경제(國防經濟)의 건설지대인 조선의 기능(機能)은 촉진케하기 爲하야 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아무런법적(法的)으로 표현된것이업섯는데 이번八월一일에『조선공업조합령』이 공포된것입니다 이것으로 비로소 조선의공업은그 전면발전을 기약하게되엿습니다 이거의를함하야 그내용은 어떠한것인가를 말슴하고 아울러 운용에대한희망등을 말슴해보려고합니다

放送 프로그람

五日(金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二〇分 〃(〃)
◇同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양白菜국』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家庭時間『毒虫에게쏘이면』 醫專病院 張起呂
◇正午(東) 時報 室內樂(레코-드)
◇同四時 뉴-스
◇同六時三〇分 幼年童話 一、햇님의며느리 二、수박속의일곱 李順伊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農村講座(一) 景福中學 姜鎭馨
◇同七時三〇分 뉴-스 銃後美談
◇同八時 京城歌謠 一、小春香歌 二、달거리 三、방아打鈴 四、梁山道 五、漢江水打鈴 林明月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〇分 마이크探訪―朝鮮聲樂研究會로부터中繼―
◇同九時 經濟解說 東亞日報 全弘鎭
◇同九時一〇分 라디오常識『受信機使用에對하야』 韓德奉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正午(城) 物語
◇午後六時(東) 講演
◇同六時一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自上海)
◇同八時(大) 義太夫
◇同八時二〇分(名) 鄕土音送
◇同八時五〇分(東) 落語
◇同九時一〇分(東) 時事解說

六日(土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二〇分 同、(同)
◇同一〇時三〇分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衛生講演『近視와그豫防』
◇正午(東) 時報 (大) 土曜코-너 캐스트라(二十三圖) 指揮 高木和夫
◇午後○時三〇分 뉴-스
◇同三時 野球試合實況(國語) ―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타이거-스―名古屋』(第一回戰)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작은音樂會 一、피아노獨奏 소나타第一番 뻬-토-벤作曲 第一樂章 第二樂章 金○燦 二、童謠獨唱 1、오리떼 2、시냇물 3、모자 劉瑛順 엣코-되온伴奏 白崇一 三、빠이올린獨奏 生徒協奏曲 第二番 G調 자이츠作曲 李相鎬 피아노伴奏 白崇一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農村講座(二)『農民의自覺』 景福中學 姜鎭馨
◇同七時三〇分 뉴-스 銃後美談
◇同八時 라디오時局讀本『代用品篇』
◇同八時三〇分 歌謠曲 一、九曲肝腸(朴) 二、시달린가슴(申) 三、눈물의金剛丸(朴) 四、粉紅데라이(申) 五、茶집아가씨(朴) 六、하어컹萬歲(申) 伴奏 DK管絃團 朴響林 申懷春
◇同八時五五分 伽倻琴併唱 一、伽倻琴 二、唱劇調 水宮歌 杖鼓 韓成俊 趙永學
◇同九時一五分 코소리와흉내 金八鈴
◇同九時四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二八) 李完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達成獨語講座
◇正午(大) 土曜코-너
◇午後六時(大) 童話
◇同六時一五分(島) 鄕土話
◇同六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警察官ノ居
◇同八時(東) 奏樂
◇同八時一〇分(東) 浪花節
◇同九時〇分(東) 라디오風景派出所의一日

七日(日曜)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二〇分 上同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 時報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細竹 韓成俊 奚琴 金德鎭 杖鼓 池龍九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野球試合實況(國語) ―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타이거-스―名古屋』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合奏 一、合奏 軍艦行進曲…瀨戶口藤吉作曲 二、獨奏 米國民謠中에서…崔一出編曲 三、合奏 브링켈將軍…디슐作曲 四、合奏 東洋風舞曲 큐보미스키-作曲 五、獨奏『愛國行進曲』『日の丸行進曲』…州口章吉作曲 六、合奏『祝典行進曲』 指揮와獨奏 崔一出
◇同六時三〇分 카라-獨奏(平壤) 一、어너카말리에 갈-알레作曲 二、勿忘草 카미키作曲 三、하와이의꽃 와이아릴作曲 四、하나, 둘, 셋, 넷 알루아作曲 五、달노래 카머커作曲 六、하어스틀, 개헌스作曲 七、니-나 玄濟明作曲 八、알로하오에 韓崇德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小我와大我』 李敦化
◇同七時三〇分 뉴-스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江上風月 二、唱劇調 春香傳中 夢中歌 鼓手 丁元燮 金如蘭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京城) 一、楚漢歌 二、開城八景 三、新離別歌 四、靑天江水 閔亨植 李正心 趙錦順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平壤) 一、孔明歌 二、山念佛 三、蓮花歌 四、방아打鈴 五、梁山道 吳明仙 朴錦姬
◇同八時五〇分 라디오드라마『동백꽃』―桂鎔作― 配役 船夫 卞基鍾 젊은이 黃澈 効果 柳一 演出 金薰
◇同九時一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지름 崔壽成 李承煥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名少優의돈버리는?

할리우드에서 第一收入이만흔 名少優라고하면 쇠―리·템플 젠·위저―스 프레디·바―솔로미유 보비·브린 입니다 어린名優들은얼마나한收入을 엇느냐? 하면 첫재『템플』입니다『템플』은週給이 七千五百딸라(約三萬六千圓) 라고합니다 여너다그外에 템플의 얼골을 使用하는 衣服, 帽子, 玩具, 人形等에서 오는權利金이相當해서 一年間 收入은 五十萬딸라(約百七十萬圓)을 超過한답니다 템플의 어머니는 템플을 撮影所로 데려고다닌다고해서 週給一千딸라를 밧는다고합니다

▲…젠·위저―스의 週給은 二千五百딸라(約八千七百圓) 外에 라디오에서 收入이 一千딸라라고합니다

▲…『프레디·바―솔로미유』는 週給 二千딸라外에 會社와의特約에서 생기는 收入이 相當하다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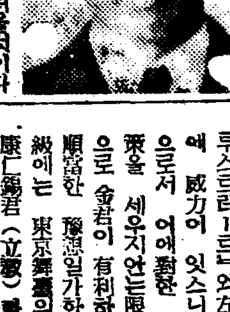
★…少年歌手『보비―브린』은 三年前만해도 週給七五딸라이던것이 漸漸昇給이되어서 一本出演料가 三萬五千딸라―(約十二萬圓)이라고합니다 얼마전까지도 少年俳優이든 작키·쿠―퍼가 一本出演料가 一萬딸라라고합니다 興行收入順序대로 『템플』『위―저스』『바―솔로미유』『보비·브린』

映畵手帖

今夜의拳鬪想像
運動競技
三對二接戰이나 東京學生軍有利
朝拳部長 成義慶 記

今年度拳鬪界에 燦然한記錄을남길 東京在學生遠征軍對 朝鮮拳鬪俱樂部對抗 아마추어拳鬪戰은 朝鮮日報社後援下에今五日 午後七時半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 壯快한幕을 열기로되엿는데 斯界의人氣를總集中한 今番의 關戰한 戰前豫想을抄하야 판의參考에 바처려한다

· 플라이級의 金享中君(朝拳)과 洪君(立敎)의 對決은 어날의戰運을 左右하리만치 가장重要한一戰이다 戰前豫想으로 金君이 一線에서 물러섯이던 復活의 첫舞臺로디게되여 新鋭洪君의 洗鍊된妙技에 威脅을느끼고 잇스나 손처럼 勝敗를 헤아리기 어려울것이다 더욱이 이번對洪戰에는 延長까지나면 勝敗를 決定하게되므로 困難하리만치 伯仲之勢를 보여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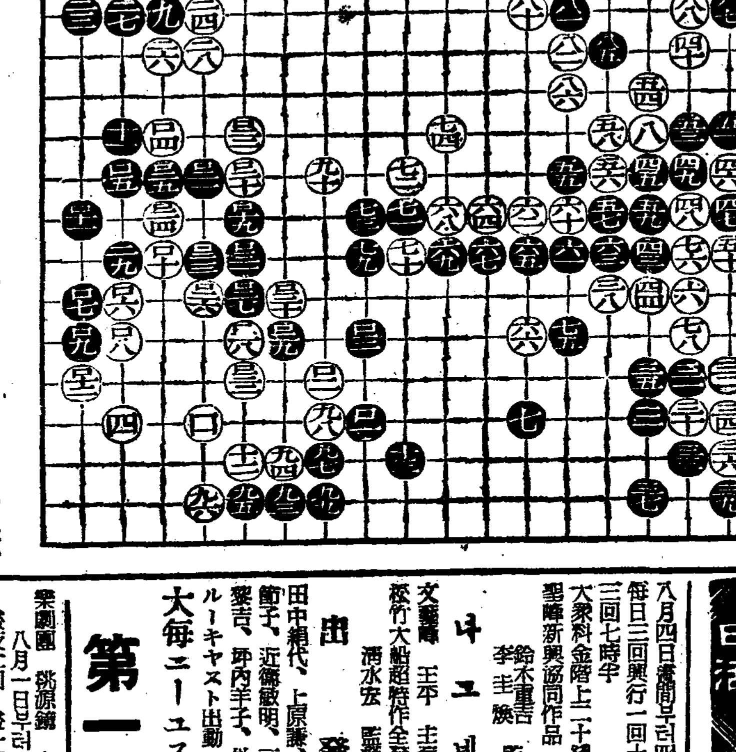
다음은 뺀탐級이데 여기에는 지난해에 光輝잇는戰績을남긴 金明鎬君(朝拳)이 關東의覇者 崔鼎煥君(日大)을相對로 從前의熱戰을 展開할려인데『차우스포ㅡ』金君은『원투스트레ㅡ트』와左『앞퍼컷』에 威力이 잇스니만치 崔君으로서 이에對한 愼重한 對策을 세우지안는限 六分四分으로 金君이 有利하리라는것이 順當한 豫想일가한다 페더ㅡ級에는 東京舞臺의 人氣男兒 康仁鎬君(立敎)과 宋孝鎬君(朝拳)의 對戰인데 康君의卓越한『테크닉』에 宋君이 어데까지肉薄할수잇을것인가에 興趣를 자아내게된다 라이트級에잇서서는 文春成君(專修)과 成漢慶君(朝拳)의 對時이된데 文君과成君은 서로히 力量을잘 알고잇스므로 對戰커 어려운 相對일것이다 그러나 過去의 戰績을더듬어보다면 文君에게 勝味가잇다고 豫測된다 끄트로 웰터ㅡ級에는 無敵强拳李重煥君(早大)과 新進朴壽天君(朝拳)의 熱戰으로 終幕을장식하게된데 이경기에는壯烈한 KO戰이 演出되지나 안을가한다 올림픽代表의 榮譽를 노리는李君의 勝利를 豫想케한다

以上과가티 大體로보아 三對二로 東京在學生軍이 有利할것으로 豫測되는데 朝拳이 어찌나今夜의『컨디슌』에 依하야 에달렸다고본다(寫眞은成義慶氏)

國手爭霸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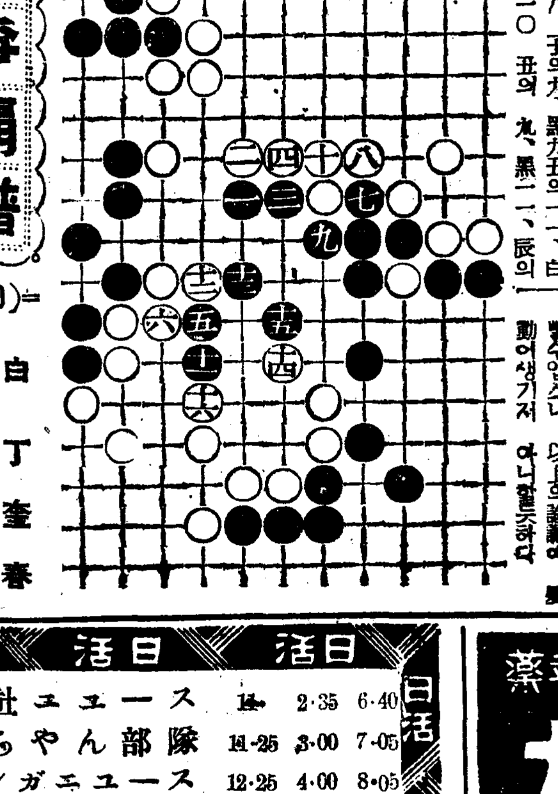
白 丁奎春
黑 權秉郁
(四日午後出)

本社獨占



●二一三 辰의三
○二一四 巳의一
●二一五 巳의二
○二一六 卯의一
●二一七 寅의一
○二一八 卯의十一
●二一九 卯의十
○二二〇 卯의十
●二二一 辰의九
○二二二 卯의二
●二二三 辰의十一
○二二四 巳의十
●二二五 巳의一
○二二六 辰의十三
●二二七 卯의十三
○二二八 卯의十四
●二二九 寅의十四
○二三〇 寅의十三
●二三一 卯의十二
○二三二 卯의十五
●二三三 辛의三
○二三四 辛의四
死點…
●七 巳의四
●四〇 乙의十一
粘……
○三 巳의四

參考圖



黑二二五의自謙
宋襄의仁이낼까
三玄子

局勢는 벌써 中盤이지나거 어려렇의 局面에서 細碁戰이 시작하얏스므로 對局雙方의緊張이 一層增蠲되고 잇는것은 말할必要도 엄거니와 黑二一三乃至二一六은 黑의先手活用에依한 必然的應酬이오黑二一九卯의一一은 卯의一〇으로 一線을 더길게侵入하는것이 오 要害로하다 그러두면一線의差로 白地의四、五目을 더막어 줄수 잇다 그리고 그와가티 되면 下面의 白地를 주리는 方法도 다른게 되어黑은 더 만흔 利를 가질수 잇섯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들을圖示하면 黑一 卯의 一〇 白二 卯의 九、黑三 寅의 一〇 白四 寅의九、黑五 辰의 一三 白六 巳의一三、黑七 子의一〇、白八 子의九、黑九 丑의一一、白一〇 丑의 九、黑一一、辰의一四、白一二 辰의一二、黑一三 卯의一二、白一四 寅의一四、黑一五 寅의一三、白一六 辰의一五가되여야 下面의白地도 보다 二目가 적어진다

白二二〇乃至 黑二二三은 邊의一手로 黑二二四 巳의一一은 늘먼한地點이다 黑二二五가 巳의 一〇으로 악지안코 辰의一三으로 나갓드면 이方面의白地는 모조리 부서지고 말지안는나 그러데 黑이, 도한 그리치어니한것은 누가보아도 宋襄의仁으로 自謙한것이아니라 할수업다

그리고 白二二六乃至 二三二는 必然한應酬어어니와 黑二三三 辛의三은 먼저乙의七에 두어 丁의六까지 確保하는것이 利가 될것이다 그러두면 白이 庚의二로 侵入하야 辛의二에잇는 黑一點을 取하게 는대 그것은 역시 後手가되야 丑의一四를 黑에게 讓步치아니할수업스니 黑은 最後의 남아잇는 三處의 大場을 모두占할 可能性이 엇지안라 그리고 黑이 乙의七에 두면 白이 丁의六으로 나가지못하는것은 後手가되는 까닭이것을 往意할바이오 또黑이 辛의三에두어 辛의二에엇는 黑一點을 救해노앗스나 白二三四가 辛의四로 드러온뒤에應手할거들이업서 어方面의 黑地는 조금도 增大할수업는것을 생각지 안흐면 아니된다 설사 白이 먼저 丑의 一四를 占하야 이 方面에서 五四戶의利를 가진뒤에 庚의二로 侵入한다 하야도 先手를 빼앗수업스니 以上의論議에 變動이생기지 아니할듯하다

八月四日晝間부터四日間大公開 每日三回興行 一回十二時 二回綴映 三回七時半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聖峰新興商同作品 鈴木重吉 李圭煥 監督 나그네(旅路) 王平 主演 文藝峰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淸水宏 監督 出發 田中絹代、上原謙、佐分利信、忍節子、近衛敏明、三宅邦子、河村黎吉、坪內美子、外大船、京都オールキャスト出動

大每ニュース

第一劇場

樂劇團 桃源鏡 中央大公演 八月一日부터 晝一回 夜七時半
○涼味百%의大娘子群襲來? 노래, 춤, 歌劇, 音樂의混合劇 新婚광자騷動 1景
○洪開明構成 바라에티 五色燦爛한豪華版 1、金色의꿈 8景 2、月夜曲 8景
○李瑞求作 喜歌劇 青春호텔 全1景
1次 喜歌劇 사랑의아드사령 五景 2 바라에티 十六景 3 李瑞求作 喜歌劇結婚大作記 五景

團成社 電話光二四九二番

日活 各社ニュース 14― 2·35 6·40
悅ちやん部隊 14·25 3·00 7·05
マンガニュース 12·25 4·00 8·05
出世太閤記 12·40 4·15 8·20
八月九日マデ 八月四日ヨリ
午前中入場者30セン均一
黃金座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東洋劇場

●高協劇團中央公演 八月一日밤부터七日밤까지 ▲上演演目……李瑞求作『雪怨草』三幕五場 九月山人作『여자의一生』二幕
▲次週八日밤부터五日間▶ 朝鮮聲樂研究會大公演 上演演目……金容承編 雍固執(옹고집)大喜
……◇◇◇……
八月四日부터四日間(晝夜二回開映)
名畵鑑賞大會於府民館
京城府主催……十錢均一
▲八月四日五日(二日間)上映名畵 ①『新しき土』(아놀드·환크博士作品) ②『鄕愁』 藝術愛 金元浩 愛國과戀愛(晝夜二回)
▲八月六日七日(二日間)上映名畵 新版『半島の舞姬』新興作品 崔承喜主演 未完成交響樂